

내가 왜 떴게?

전범기 닮은 포토존서 인형 안고 ‘찰칵’



하연수

●하연수, 전범기 사진 논란 : 그 놈의 전범기. 이번엔 배우 하연수가 구설에 올랐다. 러시아 여행 중 그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 그림이 하필 전범기를 쏙 빼닮은 것. 하연수는 “러시아의 서커스장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일부 누리꾼이 “사진이 전범기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하자 하연수는 “패턴이 집중선 모양이라 그렇다. 민감한 부분이라 채도를 낮춰서 올린 거다. 원래는 새빨간 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전범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인데 굳이 채도까지 낮춰 가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이나”며 불쾌해 했다. 결국 하연수는 사진을 삭제했다. 누가 봐도 전범기 닮긴 닮았네. 게다가 왜 하필 원숭이 인형을 안고 사진을 …

여신들의 몸무게는 50kg대?

●몸무게 인증한 여자 연예인 : 언론,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몸무게를 ‘화끈하게’ 공개한 여자 연예인들의 명단이 나왔다. 이효리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남편 이상순에게 “지금 몸무게가 55.6kg이다”라고 했다. 52kg이라고 밝힌 이엘은 “몸무게와 보이는 몸은 조금 다르다”라고 고백(?)했다. 전소민은 53kg, 헤리는 51kg이다.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은 60kg라고 공개해 ‘육식돌’이란 별명을 얻었다. 여자 연예인들이 모두 44사이즈에 42kg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길. “저 키에 40kg대라면 해골”이라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와 이렇게 된 거, 제 몸무게는 7… 아닙니다.



설리

양현석

“설리·양현석…SNS 좀 그만 해!”

●SNS 적당히 했으면 하는 스타 :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와 익사이팅디시가 ‘SNS 제발 적당히 했으면 하는 스타는?’이라는 이색투표를 실시한 결과 설리가 1위에 올랐다. 총 9479표 중 19.3%인 1831표를 획득했다. 설리는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어구이 영상과 관련된 동물학대 논란이다. 2위는 1221표를 얻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랭크됐다. 3위는 914표의 김부선. 메달 따신 세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부상으로는 한 달간 SNS 자제권을….

보건복지부 “폭식 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하겠다”

먹방 규제 논란…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간섭” “폭식절제 위한 조치” ‘먹방과 비만’ 연구 결과도 엇갈려 복지부 “제안중 하나” 웅색한 변명

‘맛있는 녀석들’, ‘밥블레스유’, ‘인생술집’,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3’… 현재 방송 중인 대표적인 TV ‘먹방’이다. 출연자가 음식을 맛깔스럽게 먹는 모습을 주 내용으로 삼는 프로그램들이다. 예능프로그램들은 요리와 음식을 다루는 코너를 중요한 구성으로 꾸민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 SNS상 먹방 콘텐츠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250만 명을 돌파한 ‘밴쯔’ 등 인기 유튜브도 등장했다.

이런 먹방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19년까지 폭식 조장 미디어 및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제나, 아니냐

보건복지부는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며, 비만으로 인한 질병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최근 10년간 2배 늘었다는 등 실제 통계치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2022년 추정 41.5%의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논란은 대책 중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에 대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폭식 조장 미디어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먹방’ 프로그램의 향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6월18일 열린 케이비채널 올리브 ‘밥블레스유’ 제작발표회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는 언급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폭식 조장 미디어”에 TV와 인터넷 방송이 포함됨으로써 전반적인 먹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과도한 규제라고 못 박는다. 정부의 대책이 “개인의 식생활 문화와 그 선택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비판한다. 일부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 관련 활동을 펼치는 유튜버들의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 건강관리

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며 반긴다. 일부 먹방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넘어 말 그대로 폭식하는 장면을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과도하게 식욕을 자극하지만 음식 섭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논란에 대해 “먹방에 대한 규제나 강제적 조치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은 물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폭식

의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걸맞은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먹방이 수용자의 식욕을 자극해 결국 폭식과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엇갈린다. 실제로 식욕을 촉진시킨다는 결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 일부에서는 ‘혼밥’ 등 개인주의적 행위를 중요시여기는 정서 속에서 먹방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수용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축구협회-K리그, 군경팀 운영개선 만지작

선수단 입대연령 현행 만28세→23세 A·B팀 나눠 하위리그 경험 기회 제공

한국축구가 군·경축구단 운영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K리그 각 구단 사·단장들은 ‘군·경축구단 운영개선안’에 대한 서명을 진행 중이다. 아산 무궁화(경찰축구단)를 비롯한 K리그2 10개 구단 대표자들이 이미 찬성한 가운데, K리그1 12개 구단 대표자들은 8월 대표자 회의에 맞춰 결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초 언론사 축구팀장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56) 회장이 “기량이 한창 좋은 시기에 많은 선수들이 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경축구단 선발 중대 및 입대 연령을 23세 이하로 낮추는 안을 고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실행의 첫 걸음이다.

협회와 K리그의 구상은 크게 두 가지다. ▲K리그1 상주 상무(군군체육부대)와 K리그2 안산 무궁화 선수단 입대연령을 현행 만 28세에서 23세로 낮추는 방식 ▲군·경축구단을 A·B팀으로 구분, 2군 개념인 B팀에 한해 연령을 낮춰 내셔널리그(실업축구)와 K3 리그 등 하위리그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이다.

물론 전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당장 입대시기를 조정하면 해당 구단의 거센 반발을 살 뿐 아니라 군 입대를 앞둔 수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적게 3~4년, 길게는 5년 가량 시간을 부여해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고, 상무를 유지하면서 시민구단을 탄생시킨 K리그2 광주FC처럼 상주와 안산 등 지자체들이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후자의 핵심은 B팀 운영이다. 우수자원들의 병역이행을 돕고, 경험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수혜를 얻을 구단들이 일정 비용



축구계가 군·경 축구단 운영 개선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이달 초 “군·경축구단 입대연령을 2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K리그 각 구단 사·단장들 역시 이에 대응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산적한 과제들을 풀고 현실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동아 DB

을 부담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협회가 나머지를 채우는 형태가 유력하다.

그런데 별도의 (B)팀 운영에는 걸림돌이 많다. 입대대상을 K리그 산하 유스 출신으로 한정할지, 전체 아마추어 학원 및 클럽 축구까지 확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팀 하나가 추가되면서 병역 확충이 이뤄지는 구조라 축구계는 물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군·경축구단 운영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이처럼 K리그 대표자들이 발 벗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도 ‘K리그 전체의 중지를 모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회장과 협회는 2018러시아월드컵 현장을 찾은 K리그 대표자들과 만나 한국축구의 현실과 개선점을 논의하던 중 이번 안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K리그 한 구단 임원은 “실행이 중요하다. 더 이상 고민으로 그쳐선 안 된다. 유럽 진출도 어릴수록 유리하다. 군·경축구단의 정체성도 빨리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이젠, 위만 볼 거야!

“수비야구·선수관리 잘해야 가을무대 선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5위 싸움 핵심 키워드, 마운드 안정과 연패 줄이기

5명의 해설위원이 꼽은 5위 싸움의 핵심 키워드는 마운드 안정과 연패 줄이기로 요약된다. 안 위원은 “마운드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KIA도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의 상승세도 마운드의 힘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위원은 “마운드 안정화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야구는 결국 투수놀이다. 넥센도 마운드가 무너진 탓에 혹서기에 고척스카이돔에서 많이 진 것(1승8패)이 뼈아프다”고 마운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종열 위원은 “수비가 가장 중요하

다”며 “수비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투수들이 무너진다. 1~2점차 승부가 증가할수록 수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과 차 위원은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 위원은 “연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현시점에서 싸움이 패배를 당하면, 잔여게임이 많지 않아 만회할 기회가 적어 그만큼 분위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든 시리즈에서 1승은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차 위원은 “부상 없이 얼마나 선수들이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AG 브레이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폭염으로 선수들이 무척 힘들어하는데, 전력 손실 없이 최대치를 쏟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